비트코인 14% '뚝'… 美 빅스텝 공포, 가상자산 시장 강타

〈주간〉

긴축 우려 비트코인 6만 弗대 후퇴
이더리움 등 알트코인 두자릿수↓
10월 CPI 상승률 등 긴축전망 확산
투자심리 지수 '극단적 공포' 수준


따능 AI 생성 이미지. 비트코인을 비롯한 알트코인 가격이 하락하는 모습.

가상자산 가격이 급락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긴축을 시사한 가운데 오는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p)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할 수 있다는 우려도 확산하면서 가상자산 가격을 끌어 내렸다.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은 최근 일주일 새 14% 넘게 하락해 6만 달러 중반까지 내렸고, 주요 알트코인도 급락했다.

15일 가상자산 시황정보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은 이날 정오께 1BTC당 6만4748달러에 거래됐다. 24시간 전과 비교해 2.79% 내린 가격으로, 주간 가격 하락폭도 14.43%에 달한다. 비트코인은 이달 초까지 8만 달러를 넘겨 거래됐는데, 미 연준이 추가 긴축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면서 약세를 지속하고 있다.

주요 알트코인(비트코인 이외의 가상자산)도 급락했다. 이날 가상자산 시총 2위 이더리움(ETH)은 지난 주 대비 18.65% 내린 1818달러에 거래됐고, 같은 기간 시총 3위 바이낸스도 14.6%의 하락을 기록했다. 4위 리플(XRP)과 5위 솔라나(SOL)는 각각 16.36%와 19.98%의 가격 하락을 기록했다.

최근 가상자산 가격이 급격히 하락한 것은 미 연준 인사들이 강도 높은 긴축을 암시하고 있어서다. 통상적으로 가상자산 가격은 시장 유동성이 늘어나는 금리 인하기에 가격이 상승하며, 금리 인상기에는 시장 유동성 감소에 따라 가격이 하락한다.

앞서 크리스토퍼 윌러 연준 이사는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예상대로 개선되더라도, 12월 FOMC에서 기준금리의 25bp 인상을 지지할 것"이라며 "경제활동은 강하고 노동시장은 안정됐지만,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은 FOMC의 목표치인 2%를 크게 웃돌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해당 발언은 같은 날 미 10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를 앞두고 제시됐다.

이어 그는 "10월의 지난 두 달과 유사하게 근원 CPI 상승률이 0.3% 부근이거나 그 이상으로 나타난다면, 더 강력한 정책적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라며 "그럴 경우 12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50bp 인상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미 노동통계국이 발표한 10월 CPI(근원 CPI)는 0.3% 상승을 기록해, 시장 전망치인 0.2%를 웃돌았다.

로리 로건 댈러스 연은 총재도 같은날 "현재 경제 전망을 고려한다면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최소 두 차례의 25bp 금리인상을 단행해야 한다는 점이 분명하다"라며 "목표치를 웃도는 인플레이션이 오래 지속되면 경제주체들의 행동에 고착할 위험이 커진다"라고 강도 높은 긴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로건 총재는 올해 연준의 순환 투표권을 가진 4명의 지역 연준 총재 중 한 명이다.

미 연준의 강도 높은 긴축 전망이 확산하면서 시장 내 투자심리도 최저 수준으로 치달았다. 가상자산 시장의 투자심리를 나타내는 '공포-탐욕 지수'는 최근 12까지 하락해 '극단적 공포' 단계를 나타냈다. 공포 탐욕 지수가 '극단적 공포' 수준을 나타낸 것은 금리 인상 우려와 코인 비축 기업의 대규모 매도 우려가 불거졌던 지난 6월 초 이후 5개월 만이다.

전문가들은 연준의 금리 경로가 향후 가상자산 가격을 결정할 것으로 분석했다. 긴축이 지속되면 가상자산 가격이 더 내릴 수 있다고 분석하는 한편, 인플레이션 해소에 따른 상승 시나리오도 제시했다.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 BTSE의 제프 메이 최고운영책임자(COO)는 "가상자산 가격은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자 12월에 금리를 인상할 것이란 가정 때문에 하락했다"라며 "연준이 예상된 0.25%p 대신 0.50%p의 금리 인상에 나선다면 가상자산은 더 큰 하락 여지를 가질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블록체인 기술 기업 ViaBTC의 제프 고 수석분석가는 "시장은 11월 말 발표될 개인소비지출(PCE)와 12월 9일 FOMC 직후 공개될 점도표를 주시하게 될 것"이라며 "혹은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가 (유가 상승에 기인한) 인플레이션을 빠르게 낮추는 시나리오도 제공할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빚투' 확산… 마통 잔액 4년여 만에 최대

5대 시중은행 잔액 44.2조 기록
입출금 등 요구불예금 두달째↓
증시 변동성에 유동성 확보 움직임

국내 증시가 조정 국면을 이어가는 가운데 5대 시중은행의 마이너스통장 잔액이 44조원을 넘어서며 4년3개월 만에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주가 반등을 기대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대출을 활용해 투자 자금을 확보하면서 이른바 '빚투'(빚내서 투자) 수요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지난 12일 기준 마이너스통장 잔액은 44조263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 8월 말(44조7699억원) 이후 4년3개월 만에 가장 많은 규모다.

지난달 말(43조5950억원)과 비교하면 12일 만에 6682억원(1.5%) 증가했다. 이 달 증가액은 10월 한 달 증가액인 6115억원을 이미 넘어섰다.

지난해 말(39조9275억원)과 비교하면 올해 들어 4조3357억원(10.9%) 불어났다.

마이너스통장 잔액이 증가하면서 약정한도 대비 실제 사용액을 나타내는 소진율도 높아지고 있다.

A은행의 마이너스통장 소진율은 지난해 말 43.0%에서 지난달 말 47.3%로 상승한 데 이어 이달 12일에는 48.0%까지 올랐다. 지난해 말보다 5.0%포인트(p) 상승하며 약정 한도의 절반에 근접했다.

B은행 역시 같은 기간 소진율이 40.2%에서 45.1%, 46.1%로 높아졌다. 올해 들어 상승 폭은 5.9%p에 달한다.

반면 은행에 머무는 대기성 자금은 감소하는 추세다.

5대 은행의 요구불예금 잔액은 지난 12일 기준 656조4744억원으로 지난달 말(663조3524억원)보다 6조8780억원(1.0%) 줄었다.

지난달에도 12조1725억원 감소한 데 이어 두 달 연속 감소세를 보이면서 9월 말 이후 빠져나간 자금은 19조원을 넘어섰다.

요구불예금은 입출금이 자유로워 투자 대기자금의 성격을 갖는다. 은행권에서는 최근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투자자들이 주가 반등 시점에 자금을 투입하기 위해 유동성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주가가 하락할 때 저가 매수에 나서려는 수요가 마이너스통장 사용 증가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전체 정기예금 잔액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5대 은행의 지난 12일 기준 정기예금 잔액은 1046조1960억원으로 지난달 말(1030조4880억원)보다 15조7080억원(1.5%) 증가했다. 지난달 24조4009억원 늘어난 데 이어 이달에도 자금 유입이 이어졌다.

그러나 이를 개인 투자자들이 증시에서 자금을 빼 은행 예금으로 이동하는 '역(逆)머니무브' 현상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개인 고객의 단기 정기예금 신규 가입 규모는 지난해보다 감소했다.

지난달 5대 은행의 만기 6개월 이하 개인 정기예금 신규 가입액은 13조288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16조1507억원)보다 2조8618억원(17.7%) 줄었다.

/나유리 기자 yul115@

저축은행, 금리 8% 파킹통장 잇따라 출시

자금이탈 방지·고객유치 일환
기본 6%에 우대금리 등 적용

저축은행들이 연 최고 7~8%의 고금리 파킹통장을 내놓고 있다. 연말 고객 자금 이탈을 막고, 소액 자금을 주로 운용하는 2030 고객을 유치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KB저축은행은 연 최고 8% 변동금리를 제공하는 'KB팡팡 mini통장'을 운영한다. 기본금리는 예치 금액별로 30만원 이하 6%, 300만원 이하 0.6%, 3000만원 이하 0.3%, 3000만원 초과 1.0%가 적용된다.

여기에 KB저축은행의 kiwi멤버십 또는 마케팅 수신에 동의하면 0.5%포인트(p)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이 외에도 팡팡 KB체크카드를 월 3회 사용하면 0.8%p, 간편결제 등록 또는 자동이체 2건 이상 출금 거래를 등록하면 0.7%p 금리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교보SBI저축은행은 연 최고 7.7% 금리를 제공하는 '생활파킹통장'을 선보였다. 생활파킹통장은 신규고객에게 4%의 높은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외에도 17~39세 청년층에게 0.5%p, 토스, 카카오페이 등 페이사 결제계좌 등록한 고객에게 0.5%p 우대금리를 지급한다.

기본 금리는 예치 금액별로 200만원 이하 연 2.7%, 200만원 초과~1억원 이하 1.7%, 1억원 초과 0.2%다. 우대금리는 200만원 이하 예치 금액까지만 적용된다.

OK저축은행의 'OKx다날다모음통장' 상품도 주목할 만하다. 먼저, 기본금리 50만원 이하 분에 연 5.0% 금리를 적용한다. 500만원 이하는 연 0.8%, 5000만원 이하는 연 0.1%, 5000만원 초과는 연 1.0%다.

우대금리는 다모음캐시 결제계좌 등록 시 1.8%p를 제공한다. 이 외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전화 등 마케팅 이용 동의 시 0.2%p 금리를 지급한다.

OK저축은행 'OK웃맨 서포터즈' 통장 이용 시에도 최고 연 7% 금리를 받을 수 있다. 기본금리는 OK 다날다모음통장과 동일하며, 우대금리는 4대 페이(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페이코, 토스) 또는 카드 결제계좌 등록 시 1.8%p, 마케팅 동의 시 0.2%p를 각각 제공한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우리은행, 폐전자가전 85t 수거 'ESG경영'

자원순환 캠페인 '스마트 펀' 성료

우리은행이 'ESG경영'의 일환으로 추진한 자원순환 캠페인을 통해 85톤에 달하는 폐전자제품을 수거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10월 29일부터 11월 13일까지 진행한 임직원 자원순환 캠페인 '스마트 펀(Smart Fun)'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5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쓰지 않는 전자제품을 올바르게 배출하고 재활용에 동참하자는 취지로 마련된 이번 캠페인을 추진했다. 캠페인은 본점과 영업점, 임직원 가정에서 나온 제품을 수거해 비영리법인 E-순환거버넌스가 운영하는 'ESG나눔 모두비움' 프로그램에 기부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특히 캠페인 첫날에는 정진완 우리은행 은행장도 폐전자제품을 기부하며 임직원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우리은행은 캠페인 기간 자동화기기 231대와 사용하지 않는 전산기기 379대, 임직원이 기부한 폐전자제품 182대 등 총 8만4905kg을 수거하고 승용차 약 63대에 버금가는 연간 탄소 배출량을 감축했다.



정진완 우리은행장이 폐전자제품 수거에 참여하고 있다. /우리은행

/안승진 기자

KB국민은행 '비대면 상속 서비스' 선보여

서류 제출·예금지급 모두 모바일 처리

KB국민은행은 영업점 방문 없이 모바일로 상속 관련 서류 제출부터 예금지급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KB스타뱅킹 비대면 상속 서비스'를 선보였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은행권 최초로 상속에 필요한 서류 발급부터 접수, 공동상속인 동의까지 상속 절차 전반을 비대면으로 연계한 것이 특징이다. 기존에는 상속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영업점을 방문해야 했지만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영업점 방문에 따른 시간적 부담을 줄이고 고객 편의성을 높였다.

서비스 대상은 피상속인 명의의 KB국민은행 상속 예금 총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다. 다만 일부 상품은 비대면 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 만 19세 이상 상속인 중 1명이 대표로 신청할 수 있으며, KB스타뱅킹에서 영업점 방문 없이 상속예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안상미 기자 smahn1@